

## 외환관리제도

### 환율제도 추이

#### 계획환율제도

시기 : 1949 ~ 1978

#### 내용

- 일괄적인 수지관리, 집중관리 및 통일관리원칙  
(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 정부간 거래에만 내부적으로 사용, 공식적인 환율은 미발표)
- 1970년대 이전에는 환율변동이 없는 고정환율제  
(1957년 공식적인 환율표시 /US\$ 1 = 2.4618元)
- 인위적 인민폐의 평가절상은 있어 왔음

#### 이중환율제도

시기 : 1979 ~ 1984

#### 내용

- 공식환율은 외자유치나 관광관련거래에 적용  
(US\$ 1 = 1.5元)
- 1981년부터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해 무역거래에는 내부결제환율을 적용(US\$ 1 = 2.8元)

☞ 중국의 내부결제환율이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의 역할수행 이유로 철폐를 요구(미국, IMF) 1985년 1월 내부결제환율 폐지

#### 공식환율 및 외환조절가격(시장환율) 등 二重換率制

시기 : 1985 - 1993

#### 내용

- 공식환율의 평가절하로 환율단일화 실현  
: 1979년 - 1994년 1월 1일 기간중 82.4% 평가절하

(1.5318元/US\$-->8.7元/US\$)

- 기업간 외환거래를 통한 조절환율과 정부가 정하는 공정환율의 이중 환율제도 운영

\* 공정(공식)환율 : 중국인민은행이 결정

\* 조절환율 : 1981년 설립된 외환조절센터(외환시장)를 통한 기업 간 외환거래로 형성된 시장환율

☞ 1990년대 들어 시장조절환율과 공정환율간의 격차로 인한 외환시장질서 왜곡

(1996년 6월말 기준 공정환율(US\$ 1 = 5.7 元) vs 시장조절환율(US\$ 1 = 10.8 元)

즉, 수출기업에게는 조절환율을 적용하고 원자재수입시에는 공정환율을 적용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에 대한 편법적인 보조금정책을 쓴다고 간주하는 등 국제적인 비난 급증.

관리변동환율제도

이중환율제도에서 시장수급에 따른 “단일 관리변동환율제”로 전환 시기 : 1994 ~1997

내용

- 환율을 원칙적으로 시장 수급에 맡김

- 인민은행은 거시경제적 목적에 따라 외환의 수급을 조절하고 위안화의 환율안정을 위해 시장개입 가능

- 조절환율을 기준으로 환율단일화

- 기업간 외환조절센터 폐지

- 은행간 외환조절센터 구축

☞ 1997년까지 중국의 위안화가 약 5%정도 상승

실질적인 고정환율제도

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, 정부시장개입이 강화되어 환율변동폭이 줄어들어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로 변질

시기 : 1997 ~ 2005

내용 :

-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환율변동폭이 유명무실
- 달러당 8.27-8.28위안 사이에서 사실상 고정

복수통화바스켓제도

2005년 7월 고정환율제(페그제)폐지

2005년 8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

\* 복수통화바스켓제도 :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(basket)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이를 반영하는 환율제도

- 통화군(basket) : 원화, 달러, 유로, 엔화 등 4대 통화

- 싱가포르 달러, 영국 파운드, 말레이시아 링깃, 호주 달러, 러시아 루블, 태국 바트, 캐나다 달러 등 7개 통화도 포함

US\$ 1 = 8.28元 8.11元으로 2.1% 평가절상

인민은행은 매일 익일 기준환율을 고시하되 하루 변동폭을 상하 0.3%로 제한 발표

◆ 시장조성자(마켓메이커)제도

2006년 1월 시장조성자(마켓메이커)제도 시행

시장조성자(마켓메이커)제도

-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씨티, HSBC 등 13개 국내외 은행(마켓메이커)으로부터 받은 호가를 기준으로 위안/달러 환율을 결정해 9시15분 외환 시장 개장과 함께 고시 환율을 발표하는 방식.

- 중국내 은행 : 중국, 건설, 공상, 농업은행 등 4대 국유은행 포함 8개 은행

- 외국은행 : HSBC, 씨티뱅크, 스탠다드차터드, ABN암로, 뱅크오브 몬트리올 등 5개 외국계 은행

2006년 6월 1달러 = 8위안 = 110엔 붕괴